

#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통화...“빠른 시일 내 만남시다”

### 민생 법안 입법 협조 요청에

###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

### 단독·다자... 회담 형식 발언 달라

### 문 전 대통령 내외 안부도 물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 만남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이 수석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전한 발언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 지도부 회동을 언급, 앞서 이 대표가 거듭 제안한 1대1 단독 만남 형식의 ‘영수회담’에는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이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연결해주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약 3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수석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제안하자 이 대표가 흔쾌히 “좋습니다”라며 응했다고 한다.

통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먼저 대표 당선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고, 이에 이 대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민생 법안의 입법과 관련해 서로 협조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을 나눴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안부를 물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어제 양산을 다녀왔는데 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는 게 김 수석의 설명이다.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후 이 대표가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자리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이 대표가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 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통화는 마무리됐다.

통화 과정에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 수석은 “당의 총재가 아니니 영수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그런(만나) 일정을 만들어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도 “민생 개혁 입법에 관한 부분은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해서,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만큼, 형식과 절차가 뒤 중요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대통령실, 정무 라인 원점 재정비·시민사회 축소 운영

### 대대적 내부 체계 변경 시도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내부 체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개편의 최종 목표는 제대로 일하는 조직”이라며 “지금은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직은 필요에 따라 계속 바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개편 작업은 그간 대통령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큼 고도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때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업관제’라는 표현이 시사하

듯, 대통령실 인사가 공직자 정신이나 정책 능력이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의 논공행상 도구로 전락했다는 일각의 우려와 맞닿아 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인재 풀이 제한적인 만큼 ‘유행관’의 아이디어와 인사 추천이 초기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편은 취임 100일 동안 실제 일해보면서 기존 설계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고치고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정무 라인을 원점부터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유임시키는 동시에 전남 문책성 인사로 나란히 공석이 된 정무1·2 비서관 자리를 신속히 채워 라인업을 재건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무1비서관은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인사로

어느 정도 후보군이 좁혀진 단계이며,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발표도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측근이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아권 출신 인사를 전격 발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여의도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야 두루 원만한 소통이 가능한 인사를 최우선적으로 낙점할 예정이다.

비서관 5명 중 3명이 공석 상태인 시민사회수석실의 경우 당분간 1급 비서관을 충원하지 않고 2급 선임행정관이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윤 대통령 “국적 상관없이 아이들은 자산”

###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 방문

### 다문화자녀 지원 확대 방침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적이 어디나 상관없이 아이들은 한국과 세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있어 부모가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국가가) 부모를 도와, 큰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 강당에서 열린 ‘다양한 소외·취약 가족과의 만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로구 가족센터는 2006년 개소 이래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도 센터를 이용하는 한부모·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자리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하나의 가정을 타깃으로 해서 돕는다는 것이 참 의미 있고 훌륭한 방향”이라며 “아이가 잘되려면 부모들의 어려운 점이 해결돼야 한다. 가족, 가정이라는 것을 정책 타깃으로 삼아 하는 것을 보니 국가 예산 등의 지원이 현장에서 그대로 제대로 방향을 잡아 운영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취약·위기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부모의 경제여건 및 가족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언어·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주민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 활용해 위기 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 국회 외통·산자위 美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

### 여야 합의...“WTO·FTA 위배 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각각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WTO 협정 및 한미 FTA에 기반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

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계시장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기술했다.

산자위도 이날 오후 채택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 및 한미 FTA 등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